

전남 서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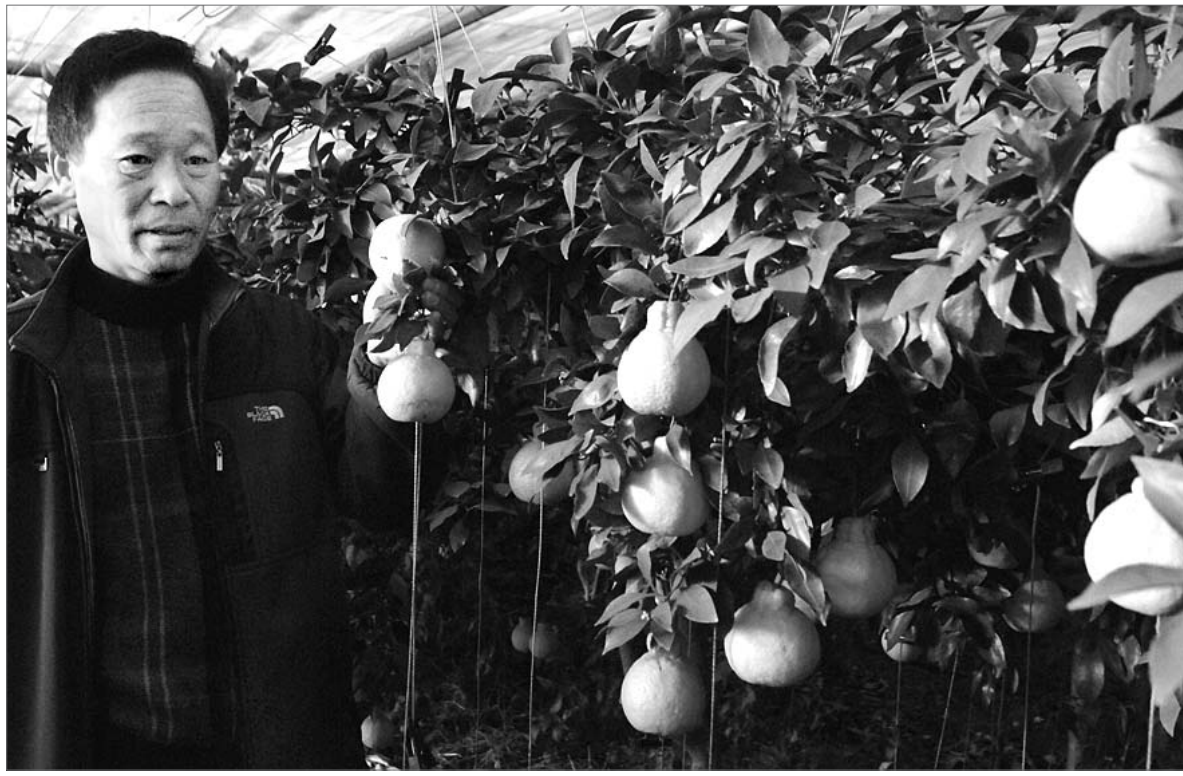
지속된 한파 뇌졸중·낙상·감기 환자 속출

목포시내 병원은 '복새통'

한국병원 등 4곳 1659 병상 가득차 무한 대기

최근 영하 10도를 밀도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목포시내 병원들이 입원실이 없어 긴급환자들을 응급실에 입원시키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목포시내 한국병원 499 병상과 중앙병원 510병상, 기독병원 450병상, 목포의료원 200병상 등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병원이 입원환자들로 가득차 입원실이 없는 실정이다. 시내 병원마다 극심한 한파가 지속되면서 노인성 질환의 뇌졸중과 호흡기질환, 결빙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 특히 신안이나 진도 등 섬에서 병

원을 찾은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이 여의치 못해 인근 여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입원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강추위가 하루빨리 물러가기를 바랐다.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겨울이면 노인성질환 등 환자들이 급증하지만 특히 이번 겨울에는 폭설과 영하권의 일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위험한 긴급환자들은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는 등 충분히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경미한 환자들을 긴급환자들을 위해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제주 한라봉 부럽지 않아요"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시설하우스에서 한라봉 수확이 한창이다. 제주도 특산물로 유명한 한라봉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4~5년전부터 해남에서도 재배되면서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 제공>

서남부 경제전망 '흐림'

제조업 생산·수출 증가세 둔화

올해 전남 서남부 지역경제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서남부 지역경제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주력업종인 조선업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 세계 교역량 증대 등에도 중소형 조선업체의 주력 선박인 벌크선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미약한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벌크선의 수주 감소와 생산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해 중소 조선소의 수출 예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새얼굴

"해양범죄 신속 대응...완벽 치안 수행"

박성국 목포해양경찰서장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성국(56)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해상공권력 강화와 빈틈없는 해양경비, 해양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완벽한 해양 치안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조성과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국

민이 부르며 해경은 간다'라는 사명감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남 출신인 박서장은 지난 1980년 해양경찰에 순경으로 입문해 여수해양경찰서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순례(54)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시 첫 여성국장 탄생

박소영 상하수도사업단장

목포시 최초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목포시는 지난 18일 단행한 서기관급 인사에서 박소영 회계과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에, 김윤식 투자총상과장을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으로 각각 승진 발표했다. 신임 박 국장은 지난 2003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민원봉사과장·사회복지과장·관광기획과장을 거쳐 8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 최초 여성국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여성계는 최초 여성국장 탄생이라는 점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서남해 '햇길 안전' 42억원 투입

목포항만청 등대 증설 등 해양교통시설 확충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이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해양교통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목포항만청은 안전한 햇길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무인등대 5기를 증설하고 노후 표지시설을 보강 및 개량해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며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 해양교통시설사업은 ▲대흑산도항 전면해상 후서등대의 4기 신설(24억원) ▲기타 노후 항로표지시설 개량·보수(18억원) 등 총 4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목포시 외달도에는 해양항만

이용고객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등대 고유기능에 지역특성을 가미한 아름다운 등대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창원 청장은 "해양특성상 수중 암초 등 위험요인이 많은 서남해역에 지속적으로 항행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해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항만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해양교통시설(무인등대, 등부표 등)은 ▲무인등대 6곳 ▲무인등대 198기 ▲등부표 75기 등 총 332기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 진양주' 대량 생산한다

시설 현대화 완료...年 48kℓ로 10배 늘어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진통 명주' 해남 진양주가 현대화 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된다. 해남진양주(대표 최옥림·71)는 최근 계곡면 덕정리에 4억원을 들여 발효 설비와 저장탱크, 자동 입병 시설, 살균 여과기 등의 시설을 갖춘 제조공장을 완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5kℓ에 머문 생산량이 최대 48kℓ까지 확대됐다. 진양주는 100% 찹쌀만을 이용해 제조하며 강한 향기와 알콜농도 13% 내외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무형문화재 진양주의 제조기술 보유자인 최옥림 대표는 "그동안 수작

업에 의존하던 진양주 제조가 현대화 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면서 "품질향상과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양주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여주(御酒)로 밋던 진통 제주주(御酒)로 밋던 진통 제주주 100% 찹쌀만을 이용해 제조하며 강한 향기와 알콜농도 13% 내외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지난 1994년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만찬 건배주로 채택되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북

"김제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원년으로"

김제시-군산관리원 내실화 추진 2대 목표 수립

김제시(시장 이진식)와 지식경제부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손경운·이하 군산관리원)은 올해를 '김제 자유무역지역 준공을 통한 내실화를 다지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김제시와 군산관리원은 전세제 경기회복에 맞춰 2011년을 '기업유치 추진 원년'으로 삼아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첨단산업 메카 육성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3무(無)화(무방문·무규제·무CO2) 고객감동 실현 등 2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전북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해 나

가도록 하기 위해 기계·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산업이 밀집된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전북권역의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능·구조·미(美) 융합한 선진국형 그린(Green) 단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표준공장 신속 등 고품질·고효율의 단지를 조성하고, 정부정책, 도내 산업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제만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을 선정, 선제적·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임대면적 및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특히 유치전략을 온·오프라인 종합홍보→타깃기업 발굴→1:1 맞춤형 투자유치 등 3단계로 특화해 연말까지 입주 투자기업 협약을 30%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3무(無)화와 적극 추진을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와 군산관리원은 세계 최고의 자유무역지대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에 해소 ▲최적의 시설관리 ▲수출확대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홍순선기자 knews@

정읍시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해외연수 희망 대학생 모집

정읍시와 전북대학교는 공동으로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글로벌리더 프로젝트(Global Leader Project)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대학생들의 국제 마인드를 높이고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학 연계사업으로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해외연수 1기생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체육과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전북대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선발인원은 10명이다. 선발되면 오는 3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주간 필리핀 세부 타타르대학에서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미디어 영어수업 등의 연수를 받게 된다. 비용은 정읍시와 전북대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문의(063-539-5534)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전주한옥마을 자전거·도보 관광을"

슬로시티 발전 정책토론회...녹색교통계획 등 논의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 내부 교통계획외의 외부 교통체계를 동시에 고려한 '녹색교통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19일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에서 열린 '전주 한옥마을 슬로시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주최발표를 통해 "과도한 한옥마을 내부 주차장 건설은 차량집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주말과 휴일, 행사기간 중 전주시내 주요 관광시설 및 공공 주차장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운행에 의해 한옥마을 차량집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객들에게는 공공 주차장에 주차한 뒤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한 관광을 권장하는 방안의 내부 교통계획과 함께 발달로

및 기린도 주변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는 등 한옥마을과 연계된 공용자전거제도와 보행환경 강화 방안 등을 서둘러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태조로와 은행로, 경기전로의 일방통행 확대지정과 함께 단계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주자 교통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교수는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린로를 축으로 한옥마을 외곽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고 들고 "구 전통도청과 한스타일진흥원, 아태문화원유산전당, 전통문화관, 생태박물관, 차명자산성지 주차장 등을 적극 활용한 뒤 장기적으로는 전주열차

잇기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기린로 지하화 구간 상부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슬로시티장회정 사무총장(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과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김재호 박사,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 등 3명이 발제자로 나서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을 가입 의미와 전망 ▲슬로시티 인프라 구축 및 주민참여 방안 ▲친환경 녹색관광교통체계구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보행자 교통체계 마련과 특화된 관광콘텐츠 구축, 주민참여방안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익산 '탐마루 쌀' 홈쇼핑 대박

TV판매 1시간만에 2억 4800만원 어치 팔려

익산의 '탐마루 쌀'이 TV홈쇼핑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농수산TV 홈쇼핑에서 익산에서 생산된 '탐마루 쌀'이 1시간여만에 2억4800만원 어치나 팔렸다. 당일 방송에서 '탐마루 쌀'은 일반 쌀보다 높은 4만6900원에 거래됐지만, 방송 1시간 동안에 무려 5300(포대당 20kg) 포대가 판매됐다. 농수산 홈쇼핑 관계자도 "20kg들이 전라도 쌀이 4만원대 가격에 홈쇼

핑에서 판매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일반 쌀이 방송 1시간 동안 2000포대 가량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판매된 '탐마루 쌀'은 지난해 익산시가 조성한 브랜드쌀 단지(800ha)에서 생산된 것으로 단백질 함량 6.5% 이하로 관리된 고품질 쌀이다. 시는 '탐마루 쌀'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음에 따라 2월 중순께 다시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유지하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했다"면서 "벼 생육기간에도 매일음에 따라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포장심사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nyu0418@

임실군 설자금 150억 집행

임실군은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0억원의 자금을 조기 집행했다. 이번 조기집행대상 자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공사 및 물품대금 106억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보조금 11억원 ▲경상비 및 기타자금 33억원 등 총 15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사업장에서 신청한 공사비의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최대한 빨리 설 명절 전에 집행해 군 발주 건설사업장의 체불노임 해소 및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서은경기자 seo@